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기술대전 24일 개막

- 자율주행·UAM·인공지능(AI)시티 기술 전시, 역대 최대 규모(81개 기관, 409개 부스)
- 현대차·KAI 등 참여 확대, 국민 체험형 전시와 전문가 특강·투자상담회 등 풍성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발한 미래 국토교통 기술이 국민 곁으로 다가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율주행·우주항공·스마트건설·인공지능(AI) 시티 등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이하 기술대전)을 6월 24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 '26.6.24.~6.26.(개막식 본행사: 6.24. 10:30~), 서울 코엑스 3층 D홀·컨퍼런스룸 E
-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www.littfair.kr

○ 15회째를 맞는 기술대전은 “미래를 바꾸는 기술(Move For Tomorrow)”을 주제로 열린다.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민간 혁신기술을 함께 소개하며, 국민이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기술 전시회로 마련된다.

○ 81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대 테마존과 주제관을 운영한다. 총 409개 부스에서 자율주행, 건설로봇, 에너지 기본주택, 위성·드론, 28개 스타트업의 혁신 전시품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 * 도시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자율형 도시 모델

** 국토교통 분야 새싹기업의 혁신 기술을 국민대상으로 전시하는 테마존 최초 조성

- 특히, 새로운 신기술 뿐만 아니라 말단 배송 로봇, 건설공사 위험구간 정밀조사 로봇 등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국가 R&D 성과물을 전시해 국민들이 미래 기술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 물류배송기사의 노동부하를 덜어주기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배송로봇, 균열·침하·붕괴 등 고위험 구간에 투입되어 안전성을 판단하는 3차원 스캔 로봇 등

【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테마별 전시 구성(안) 】

| 구분 | 기관 | 전시 내용 | 주요 전시물 |
|-------|---------------------|-----------------------------------|---|
| 모빌리티 | 현대자동차그룹, 철도공사 등 | 자율주행, 고속철도, 미래철도R&D 및 상용화 기술 | 아틀라스(목업), 스팟(4족보행), 모베드(다기능 이동로봇),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서비스 차량 등 |
| 스마트건설 |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 AI 관리, 로봇, 무인 자동화 시공·관리 기술 | 건설현장 자재운반 로봇, 스마트모듈러홈(SMH) 등 |
| AI시티 | 토지주택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 도시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모듈러 주택 기술 | 에너지 기본주택, 모듈러주택 등 |
| 우주항공 | 대한항공, KAI 등 | UAM, 드론, 항공기, 인공위성R&D 및 상용화 기술 | 국토위성모형, 물류·배송 및 항공기 점검 드론, 차세대중형위성 2호 등 |
| 혁신기업 | 창업·벤처기업 | 신기술 및 혁신제품 전시 | 쏠지형 극복 바퀴 시스템, AI기반 공간의사결정 플랫폼 등 |

□ 올해 기술대전은 ① 체감형 전시 확대, ② 국민 공감·참여, ③ 기업성장·투자연계, ④ 기술교류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① (체감형 전시 확대) 현대자동차그룹, 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대표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3개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국토교통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새롭게 선포한(“26.6.1.) 국토부 통합 커뮤니케이션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에 부합하는 국토교통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체적·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홍보 전시관을 통해 국토교통 전주기에 대한 가상 경험도 선사한다.

② (국민 공감·참여 확대) 국내 과학 인플루언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봇·AI 분야 마스터 특강을 비롯해 Student's Day, 도슨트 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술대전에 앞서 사전 참여를 이끌어 낸 어린이 그림 공모전(4.27.~5.26.), 일반인 대상 AI 영상 공모전(4.21.~5.20.) 시상식도 개최한다.

③ (기업성장·투자 연계)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우수기술 매칭상담회를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도 함께 마련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 혁신기업들은 투자자와 발주기관을 한자리에서 만나 기술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기술교류·협력 강화) 한·스페인 양자협력, 글로벌R&D 포럼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열어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기술은 연구실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우수 기술이 연구·개발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 CES가 세계 혁신 기술의 무대라면, 국토교통기술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교통 기술의 현재와 최첨단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라며, “국토교통부는 기술선도 부처로서 미래교통과 AI시티, 우주항공 분야 등 혁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멈춤 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술대전
누리집



기술대전
공식 홍보영상



혁신기업
홍보영상



홍보물
바로가기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김태경 (044-201-3258)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유준 (044-201-3261) |
| | | | 주무관 | 김수현 (044-201-4743) |
| | | | 전문위원 | 윤희준 (044-201-3254) |
| <공동>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 책임자 | 실 장 | 정삼동 (031-389-6550) |
| | | 담당자 | 수석연구원 | 김기욱 (031-389-6385) |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 TOMORROW

참고1

국토교통기술대전 주요 전시물

모빌리티



아틀라스(목업)



스팟(4족보행)



수소트램 VR체험



교통소외지역이동지원차량

스마트건설



건설현장자재운반로봇



용접특화다관절협동로봇



스마트 모듈리 홈



스마트에어백조끼

AI시티



제로에너지기술 전시관



제로에너지주택 체험



공장사전제작모듈주택모형



학습기반구동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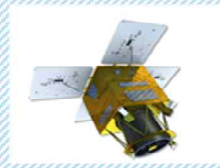
우주항공



국도위성 모델



물류수송 드론



차세대중형위성2호



드론체험(임무수행, 축구등)

혁신기업



초지형극복바퀴시스템



지능형무인정화로봇



AI 투하 드론



고층창문밀외벽청소드론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chnology Fair

미래를 바꾸는 기술
Move for Tomorrow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2026. 6. 24.(수) ~ 26.(금) | coex D홀, 컨퍼런스룸 E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